

# 海外速報

## 美·日半導体 協商 후 美 IC 價 上昇 —MOS Memory 등 급등세, 美側도 引上—

美·日간의 半導体 貿易에 관한 協商이 타결된 후 美國의 IC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. 특히 最低價格이 결정되어, 美 政府가 직접 감시하는 MOS Memory는 2 배 안팎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.

특히 덤핑 提訴의 대상이었던 EPROM, 256K DRAM의 가격에 대해서는 美 商務省이 최저 가격을 설정,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日本 제품은 모두 그 가격을 상회하여 인상되고 있다.

예를 들면 EPROM의 최저 가격은 64K가 4.75弗, 128K가 9.75弗, 256K가 12.95弗, 256K DRAM 이 5.79로 되어 있는데 종래 가격의 2 배 전후로 인상된다. 이에 따라 美 메이커 각사도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MOS Memory의 경우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다. 이런 영향은 MOS Logic 제품에도 파급되고 있다.

## 自動翻譯電話 研究 開發 추진

—日 ATR 自動翻譯研 등 10年 목표로—

꿈의 電話機라고 일컬어지는 自動翻譯電話의 연구 개발이 한창이다. 말한 단어를 이해하는 「音聲 認識」, 他言語로 번역하는 「機械翻譯」, 다시 말할 수 있는 단어로 하는 「音聲合成」, 다시 「對話技法」의 技術이 필요한 New Media. 각 분야의 연구가 ATR 自動翻譯研究所, 次世代컴퓨터 技術開發機構(ICOT)를 중심으로 情報處理·通信機 메이커의 연구소에서 진행중이다.

사업화까지 10年을 잡고 있으나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實用化일 경우 더 빨라질 공산도 크다. 최첨단 技術의 結晶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電話는 情報處理 및 通信機 메이커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.

ATR 研究所에는 관련 각 분야의 핵심 技術이 계속 집결되고 있으며, 각 메이커, 연구기관에서도 연구가 시작되었다. 實現에는 상당한 集積度의 半導体가 필요한데, 10年 후에는 현재 수준의 수십배 集積度는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. 이미 NEC, 富士通, 日立에서는 백~이백명의 연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.

## 中共, 컬러 Braun 管 工場 건설 계획 —生産設備 日에서 導入 26, 20 inch—

華潤 그룹(中共輸出入公司의 香港 總代理店)이 中共 電子工業部와 合作으로 新界 지구인 뉴 타운 大埔에 컬러 TV 브라운管的 제조공장을 건설한다.

동 工場의 부지는 약 3,300㎡, 제 1기 공사에만 15億HK弗(약 1,500억원)이 소요될 전망이다. 현재 華潤그룹은 香港政庁의 관계 부처와 土地 리스件을 협의하고 있다.

동 공장에서는 日本으로부터 컬러TV用 브라운管的 生産라인과 관련 技術을 도입, 주로 26인치와 20인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. 제 2기의 투자액은 약 2億弗(17억 6,000萬HK弗)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. 이 사업은 中共의 香港에 대한 대규모 投資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.